

217억 투자 ‘서울 농산물센터’ 연매출 5728만원

〈최근 4년 평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강남 친환경식품매장 부실운영 질타

전남산 취급 100%서 60%로 줄여…판매 뒤틀린 임대업 치중

전남도가 서울 강남에 217억여원을 들여 문을 연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의 부실 운영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 취지를 망각한채 전남 친환경식품 판매 대신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전남도의회 권옥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센터 1층 친환경판매장의 연매출은 8700만원에 그쳤다.

개장 첫해인 2012년 4억2000만원이었던 매출은 2013년 1500만원, 2014년 19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15년 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87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최근 4년 평균 연매출은 5728만원으로, 투자 대비 매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의장은 “투자비 217억원, 한 시가 300억원이 넘는 유통센터에서 연간 매출

1500만원, 1900만원을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운영사업자가 임대 수익에만 치중하고 전남 농축수산물 판매에는 관심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육이 100% 전남농수축산물을 판매하기로 한 협약은 지난 1월 전남산 60%, 일반 공예품 10%, 일반 농산물 30%로 바뀌었다. 전남 농수축산물 유통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커피숍, 오락실, 미용실, 네일아트, 치킨, 꽃집 등 건립 취지에 맞지 않은 시설도 많이 입주해 있다.

유통센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217억48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만2000여㎡,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해 2012년 6월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토지 매입비 약 100억원을 부담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해 정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양도한 채 일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전경.

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식회사가 18년간 운영하며, 현재 지하 1층 슈퍼마켓, 지상 1층 전남농수축산물 판매장·홍보관, 2층 전남공예품 판매장, 3~5층 사무실 등이 입주했다.

권 부의장은 “임대수익에만 치중하고 농축수산물 판매에는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공유재산 관리 허술, 담당부

서의 혼선, 대책 전무 등 총체적 부실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 요구대로 협정서를 5차례나 변경했다”며 “2030년까지 유통센터를 현재 방식으로 운영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남도는 협약 개정, 인수 등 방법을 찾아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해양관광단지 개발 속도

광양제철산업단은 외국인투자지역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됐다. 연륙교 건설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 회의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안건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여수 화양지구와 광양 복합업무단지 가운데 개발이 어려운 산림면적 등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빼고 대신 경도(212만7000㎡)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투자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도로 진입하는 연륙교 건설 과정에서 예상 사업비(620억원)의 상당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조원대 투자를 약속한 미래에셋은 실제 개발 구상이 담긴 경도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래에셋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제 공모를 추진해왔다.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용역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이달 중 제안서를 제출받아

연내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실시설계,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연륙교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에 이뤄진다. 1년6개월가량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19년말께 착공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200실 규모의 6성급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4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수상빌라, 워터파크 등 아시아 최고급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 세풍 외국인투자지역은 세풍산업 단 8만2641㎡ 규모로 조성되며 국비 148억원, 도비와 시비 각각 49억원 등 총 246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법인세와 취득세를 5년간 감면해준다. /박정욱기자 jwpark@



800명 경남도민의 ‘임 행진국’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과 이형석 광주시장위원장,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핵심간부 등 800여명이 지난 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특혜市 감사위 중징계 요구 하급직원에 집중

광주시 행정감사

광주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주경남(민주당·서구4) 의원은 “광주도시공사가 특정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익계약으로 위탁관리를 맡겨 특혜 시비를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590가구 규모의 S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수익계약 형태로 위탁 관리중이다. 하지만 이중 K영구임대(1500가구), H영구임대(1500가구), H국민임대(886가구), S국민임대(650가구), S영구임대(500가구) 등은 직영으로 자체 관리중이나, S공공임대는 2년 단위로 위탁 관리토록 수익계약을 맺고 있다. 2년간 수탁계약 금액은 2억8700여만원으로, 매월 1200만원 가량이 고스란히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특별히 새로운 게 없고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도 없어 굳이 수익계약을 줄 이유가 없고, 분양전환도 계약 당시 10년이나 남은 상태였다”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공무원 중징계 요구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보다는 6급 이하 하급직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민주당·비례) 의원이 이날 발표

한 ‘2016~2017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및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 기간 시청 본청 직원 5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개인 일탈행위를 제외한 업무와 관련해 내려진 징계 요구로, 대상은 5급 이상 18명 그리고 6급 이하 36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면서 5급 이상의 경우 10명 중 2명꼴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6급 이하는 10명 중 4명꼴로 중징계를 요구해 ‘하급직원들에 더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5급 이상 18명 중 중징계요구는 4명으로 중징계요구 비율은 22.4%였다. 6급 이하 36명 중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16명으로 그 비율이 44.4%에 달했다.

또한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정심(국민의당·남구2) 의원은 광주시의 자료를 인용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5개구 통틀어 2015년 1억3000만원, 2016년 2억4100만원에 이어 올해 3억21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도 2015년 106건이던 것이 2016년 121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119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전수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구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광산구가 128건으로, 전체 346건의 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구(96건), 남구(57건), 동구(34건), 북구(31건) 순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노조, 감사위원장 재임용 반대 서명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성문옥 감사위원장에 대한 재임용 반대 서명에 나섰다.

4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노조는 최근 성 위원장에 대한 연임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시 노조는 “성 위원장이 적발 위주 감사, 노조탄압과 간부 중징계 요구,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노조는 반대서명 연명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산하 사업소·실과 노조원과 간담회를 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이날 말까지 서명을 받은 뒤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노조가 성 위원장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당시, 성 위원장의 강경 대응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한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된 성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공노 가입 투표(공무원법 위반)로 고발된 시 노조 간부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행안부 공무원 신분인 성 위원장은 내년 1월 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성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암동·소풍호텔 / 주월동·성관여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 봉선동·반석물출발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생촌동·원도식육옥상, 임이자전통김치, O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족식물,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온누리마트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외 300곳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